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cap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무형문화유산과 성평등



© Umemura Yutaka



© Said Azadi



© Fumiko Ohinata

성 정체성 형성

성에 대한 가치관, 규범과 규율은 사회, 공동체 및 집단 간에 다양하다. 모든 무형 문화유산의 표현들은 특정 공동체의 성집단 간, 또는 성집단 내의 성역할 및 관계에 관한 지식과 규범을 담고 있으며, 후대에 전승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무형문화유산은 성역할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전승하는데 있어 중심적인 맥락이다. 따라서 무형문화 유산과 성 정체성의 형성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 UNESCO / Danson Siminyu



© 2008 by Ministry of Culture - Photograph: Iris Biskupic Basic

전통적인 식생활은 많은 공동체에서 여성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영역이다. 이러한 관습의 중심에는 모녀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있다. 딸은 어머니가 일을 하는 것을 관찰하고, 학습하며 동참한다. 점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러한 특정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 그들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 2008 by Ministry of Culture - Photograph: Iris Biskupic Basic

낙타는 오만 베두인(Bedouin)족의 전통적인 활동과 축제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낙타 사육과 관련된 공예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은 필요한 장비와 부대용품을 생산하는데 각자의 역할을 가진다. 여성들은 대부분의 직조품을 만들고, 남성들은 목각과 은세공을 한다. 비슷한 노동 분업은 크로아티아의 흐르바츠코 자고레(Hrvatsko Zagorje) 지역 마을 주민들의 아동용 목재 장난감 제작 기술 전통에서도 관찰된다. 그들은 세대를 거쳐 가족내에서 전승된 기술을 사용한다. 남성들은 부드러운 버드나무, 라임나무, 너도밤나무, 단풍나무를 모아 말리고 자른 뒤 전통도구를 사용하여 장난감으로 조각한다. 그 후 여성들이 그 장난감들에 '상상력'을 발휘하여 즉흥적으로 꽃이나 기하학적 무늬 등을 그려 장식한다.

무형문화유산의 특정한 표현방식에 대한 접근과 참여 역시 성별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전통 공예는 종종 상호보완적이며 성역할이 반영된 분업에 기반을 둔다.

반면에 사회적 관습, 축제 및 공연예술은 관련 공동체가 가진 성역할 및 불평등에 관한 문제점과 사회적 편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카니발전통과 공연에서 사람들은 성역할을 바꾸거나 심지어는 이를 초월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동체는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성찰을 촉진하며, 때로는 성규범에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성역할과 관계의 변화

인간은 일반적으로 유년기부터 성역할에 동화하며 학습한다. 그러나 성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무형문화유산과 마찬가지로, 성역할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한다. 공동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성역할과 규범을 '협상' 하며, 과거에 특정성별의 독점적 영역 이었던 한쪽 성에 국한된 전통들도 해당 공동

체에 의해 다른 성집단을 포함하도록 개방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성과 관련한 가치와 규범의 생성 및 보급, 변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관습이 변하는 계기는 특정한 위협에 대한 해결을 찾는 것과 같이 실용적일 수 있다. 또한 평등한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원칙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다. 성규범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 영향을 미치고, 무형문화유산은 성규범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성규범과 무형문화유산 간에는 상호관계가 성립한다.



© Umemura Yutaka

베트남 차우반(Chau Van) 무속의례의 노래는 전통적으로 ‘남성’의 역할, 복장, 행동으로 여겨지던 것들이 여성의 것으로 성역할이 뒤바뀌며, 여성의 것은 남성의 것으로 바뀌어져 행해진다. 마찬가지로 가부키(Kabuki)는 일본의 고전 연극의 한 형태로, 여성의 역할에 특화된 남 배우들은 ‘온나가타(onnagata)’라고 불린다. 다른 두 가지 주요 역할 유형으로는 거친 스타일의 ‘아라고토(aragoto)’와 부드러운 스타일의 ‘와고토(wagoto)’가 있다. 이 역할들의 특징은 성별의 모호성과 성역할의 변환 가능성이며, 이들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두 가지 성별 체계에 문제를 제기한다. 가부키 연극은 역사적 사건과 감정의 교류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갈등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가부키는 일본 전통극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



© Umemura Yutaka

성 관련 변화의 또 다른 요소는 협상과정의 실질적 참여와 누가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한 문제에 관한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보호에 관한 정책결정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별 관계와 권력 관계라는 더 큰 체제 안에 내포된 것이다. 이러한 규범과 관계들은 행동과 관계, 협상과정을 좌우한다. 이들은 종종 더 많은 참여와 권력관계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 내부에서 이의제기를 받게 된다.



© 2003 Larnaca Municipality – Photograph: Andreas Larkos



© 2003 Larnaca Municipality – Photograph: Andreas Larkos

치아티스타(Tsiattista)는 한 명의 음송시인이 즉흥으로 재기 넘치는 시구로 상대를 뛰어넘기를 시도하는 사이프러스의 ‘시 음송 대결’의 한 형태이다. 치아티스타는 오랫동안 결혼식 피로연, 축제, 기타 공공행사 등에서 인기가 높았으며, 관객들은 열광하며 시인들의 대결을 응원한다. 전통적으로 오직 남성만이 그들의 시를 구전 전승하였지만, 최근에 일부 여성들도 연행을 시작하였다.



사회 모든 계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란의 가장 오래된 극 연행 형태인 나칼리(Naqqali) 전승에 있어서도 성역할은 변화해왔다. 오늘날 여성 나칼(Naqqals)은 혼성 관객 앞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는 보통 여성 공연수가 여성 관객을 위해서만 공연을 하는 이란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까지도 나칼은 민간설화와 민족 서사시 및 이란의 문화적 전통의 가장 중요한 수호자로 여겨지며 특별한 사회적 지위가 주어졌는데, 이제 여성도 이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되었다.

성 개념의 다양성

무형문화유산이 공동체마다 다른 것처럼, 성 개념도 똑같이 다양할 수 있다. 성에 대한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하나의 이해는 없다. 더욱이 성 역할과 가치들은 공동체 관점에서 분석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북미지역의 몇몇 토착부족 집단은 트랜스젠더와 두개의 영혼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여 성별을 일곱 개까지 인정한다.

오늘날 몇몇 유럽과 아시아 사회들은 셋 또는 그 이상의 성별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종종 나이와 성별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아이들의 행동에 관한 성규범 및 성별에 따른 기대들은 청소년 및 성인에 적용되는 것들과는 다르다. 성 역할과 가치가 사회 안에서 진화하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무형문화유산의 관습과 표현의 변화를 이끌 수도 있다.

성평등

공동체의 성별 관계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무형문화유산의 관습을 통해 성평등을 이루고 성별에 의한 차별을 극복하려는 기회들이 생성되고 있다. 평등과 비차별은 핵심적인 인권 원칙들이다. 성평등과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생각할 때, 인권적 관점은 성역할 간의 차이가 아니라 이들이 관련된 사람들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부정하는지에 집중한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는 남성과 여성에 차별적으로 부여되기도 하는 성에 대한 전통적인 문화적 태도와 관습 그 자체를 도전과제로 보지 않으며, 그보다는 오히려 여성의 영향력을 빼앗거나 또는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고정관념적인 성역할을 적용시키는 것과 같이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구체적인 부정적 결과에 집중한다.

비차별의 관점에서 차별과 복종을 포함하거나 심지어 조장할 수 있는 전통적인 문화적 관습을 ‘보존’하려는 측면의 주장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그와 같은 관습으로 인해 소외되거나 영향력을 뺏길 수 있는 이들의 권리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어떤 관습들은 인권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지만, 그 외의 많은 관습들은 개인에 대한 위협의 정도를 규명하는 것이 극도로 복잡한 모호한 영역에 놓여있다.

이것은 또한 누가 그리고 언제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에 관한 어려운 문제도 제기한다. 비차별 원칙을 지키고 공동체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외층 및 성차별 집단을 포함하는 관련

된 모든 구성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사회 집단들은 이와 같은 차별적인 전통관습을 스스로 지지하거나 심지어는 부추기게 될지도 모른다. 이에 대한 이유는 종종 관습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이 있으며, 시행 중인 성역학(dynamics)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어떤 관습의 한 측면이 그 자체로는 인권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중요한 사회적 기능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케냐의 여성 조직인 케냐여성개발협회는 통과의례에 여성할례가 포함된 공동체들과 일하면서 그러한 의례의 긍정적인 사회문화적 요소를 지키면서도 대안적인 통과의례를 개발하는 것을 함께 해왔다. 이 여성단체는 그러한 전통을 바꿀지, 또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조연을 얻기 위해 어머니들, 소녀들, 아버지들 및 공동체 지도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전통적인 성년의식의 모든 측면 - 격리, 정보공유 및 축하 등 - 을 고려하되 생식기의 절제가 없는 대안의례를 고안해 내었다. 이는 은타나리나무감보(Ntanira Na Mugambo), 즉 '대화할례식'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케냐의 메루(Meru) 지역에서 처음 이러한 대안의례가 시도되었을 때, 30명의 소녀들이 속한 12개의 가족들만이 이에 참여하였다. 공동체 내의 많은 이들이 회의적이었고, 그러한 대안적 전통은 바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해당 의례는 대단한 관심을 끌었고, 이후 케냐여성개발협회는 개인과 단체로부터 열렬한 문의를 받기 시작했다. 1년 이내에 메루지역 내 11개 장소에서 200가구가 이 대안적 통과의례에 참여하게 되었다.¹

무형문화유산에서 성차별을 논할 때, 단지 하나의 성 집단이 해당 관습을 연행한다는 이유에서 이를 차별로 단정하는 단순한 생각을 방지하기 위한 고도의 조심성이 요구된다. 상당히 많은 사회·문화적 관습들이 나이, 성별 및 여타 기준에 의한 격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이러한 사실 자체가 차별의 표식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공동체들은 사회적 관습, 의례, 노하우, 구전전통 등 그들의 무형문화유산이 실제로 차별적인지 아닌지를 성 기반 분석(gender based analysis)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별에 의거한 분리(gender segregation)을 규명되어야 할 차별적 양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인권에 대한 서약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하 협약)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협약에서는 국제인권 규약에 부합하는 무형문화유산만이 협약 내에서 고려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2조 1항).

1. Maendeleo Ya Wanawake Organization. 2002. Evaluating Efforts to Eliminate the Practice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Raising Awareness and Changing Harmful Norms in Kenya, Washington DC: PATH.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성평등

성별 관계와 무형문화유산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이해는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다. 보호에 있어 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에 대한 강조는 이러한 면에서 중요한 기회가 된다. 공동체와 집단은 동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충분한 고려를 하면서 이해관계자의 다양성 및 특정한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이들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개발되지 않은 채로 남을 위험이 있다.

성평등과 무형문화유산은 실행, 연행, 전승 등을 통해 복잡하고 상호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보호 조치들은 성별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공동체와 개별 구성원 또는 하위 집단의 지위와 인식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협약은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많은 보호 조치들을 요구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조치는 무형문화유산의 지정과 목록화, 제도적, 정책적, 법적 체제의 확립, 보호 계획, 조사 및 인식제고와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당사국들은 보호를 위한 국제 원조의 요청, 협약 목록의 등재 신청, 무형문화유산 보호 모범 사례 제안 등을 할 수 있다.

지정과 성평등

협약의 이행에 있어 한 가지 중요한 이슈는 무형문화유산의 (재)창조 및 보호에 있어 여성의 기여가 가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소외층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국가 혹은 국제적 차원에서 그들의 기여는 거의 인식되고 있지 않다.² 때때로 소외된 성 집단의 무형문화유산이 연행되는 공간은 사회가 그들에게 허락한 유일한 공간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무형문화유산 지정에 있어 성 편견은 특정한 성 집단의 유산이 등한시 될 위험을 수반한다.

호주의 토착 여성이 설립하고 이끈 구전 역사 프로젝트인 '와니(Waanyi)족 여성사 프로젝트'는 그들과 관련된 유산을 인식하고 유산에 대한 조사 및 관리에 작용하는 성 편향 및 기타 편견들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여성들은 해당 유산에 대한 자신들의 우려사항들이 정부 계획에서 충분한 관심이나 정당성을 얻지 못해왔다고 여겼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산의 미래를 위한 협상과정에 그들의 목소리를 낼 전략을 발전시켰고, 인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다.³

2. Document ITH/13/8COM/INF.5.c.

3. Smith, L., Morgan, A. and van der Meer, A. 2003. Community-driven Research in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The Waanyi Women's History Project.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Vol. 9, No. 1.



© UNESCO - Photograph: Fumiko Ohmura

목록작성과 성평등

마찬가지로, 무형문화유산의 목록화와 그 관련 연구 및 기록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여성과 소외된 집단의 기여가 드러나지 않게 하거나 이를 잘못 전하게 될 위험이 있다. 협약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의 목록화는 관련된 공동체의 완전한 참여아래 착수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공동체 기반 목록작성을 위한 훈련 및 지원을 할 때는 그러한 참여가 성별 문제의 측면에서도 해당 공동체를 대표하는지, 또 어느 정도까지 대표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 넓은 범위의 무형문화유산이 지정되고, 전승과 보호에 있어 특정한 성 기반 전제들이 가시화 될 수 있다.

보호 계획과 성평등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보호 계획의 수립 단계는 특정 무형문화유산에 있어 미래의 모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순간이다. 공동체들은 특정한 관습의 중요성과 의미, 노출된 위험과 위협,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행동 및 관련된 인적, 재정적 자원 등에 관해 숙려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공동체 모든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연령 및 성별 집단의 목소리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공동체 스스로 성별 및 성역할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와 어떻게 이들이 해당 유산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 당국, 시민사회단체, 학술기관 및 연구단체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있어

서 성 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는 방법을 마련하는데 그들의 견해와 방법론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핵심 요소는 성공적인 보호 계획에 기여하는(성역할이나 성별에 기초한 조치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역할 및 조치가 중요함을 공동체 안과 밖의 이해관계자들이 인정하는 것이다.

정책 개발과 성평등

무형문화유산 정책이 성과 무형문화유산 간의 상호관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 보호를 위한 정책결정도 관계된 모든 성 집단을 포함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의 활발한 참여를 보장해야만 한다. 이를 단지 소수의 공동체 구성원, 외부 전문가, 또는 정부기관에 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정책결정은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 2003 협약 2조 1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성평등을 포함하는 인권원칙, 지속가능한 발전 및 상호존중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증진시키며, 인식제고를 위한 행동이 어떤 형태의 정치적, 사회적,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성적 차별의 형태도 정당화시키는 데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야만 한다(운영지침10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및 협약의 선택의정서⁴와 같이 성평등과 관계 있는 국제규약들은 훌륭한 참조 사항이 될 수 있다. 게다가,



© 2013 Agency for Cultural Affairs



© 2012 by Firoz Mahmud - Photograph: Murshid Anwar

정책 업무가 포용적이고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국가 영토 내에 존재하는 성 관련 관습들의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its Optional Protocol, see: <http://www.ohchr.org/EN/HRBodies/CEDAW/Pages/CEDAWIndex.aspx>.

등재와 성평등

지난 십여 년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정부간 위원회의 등재와 관련된 논의와 결정에 있어서도 성평등 문제에 대한 언급이 지속되어 왔다. 몇몇 등재 후보목록 신청서에 성역할에 대한 묘사가 포함된 적이 있었지만, 자문기구는 등재 신청서에 성평등에 관한 언급이 불충분한 것에 대한 염려를 표시해 왔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당사국들로 하여금 성평등 문제에 주목하고,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역할의 다양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것을 권장해 왔다.⁵

성평등 문제의 주요 의제화

협약에서 성평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협약의 주요 주체들은 성평등 문제에 점점 더 큰 관심을 보여 왔으며, 당사국에게 등재된 종목의 상태에 대해 보고를 할 때 성역할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여 왔다.⁶ 이러한 요청에 따라, 현재 협약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및 당사국의 회기보고서와 관련된 모든 양식과 지침에서 성평등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협약의 운영지침 역시 이에 따라 수정되었다. 또한 협약 이행을 위한 유네스코 국제 역량강화 프로그램 역시 보호를 위한 성인지적 접근에 대한 훈련과 정책 자문을 포함하고 있다.

성평등과 무형문화유산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두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 줄 수 있으며, 성평등을 향한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보호에 있어 성평등 문제의 주류화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 의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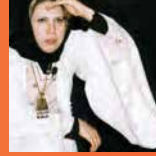
이집트여성위원회는 비정부기구인 이집트 민속전통학회에 이집트 북부지역의 자수 공예인 탈리(the Art of Tally)의 기록 및 해당 예술의 보호를 위한 여성들의 훈련을 위탁하였다. 첫 훈련에 3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참석하였으며, 이어 두 번째 훈련도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훈련에 대한 여성들의 높은 관심은 그들에게 중요하지만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었던 해당 무형 문화유산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게 되었다.



5. Document ITH/13/8COM/7.

6. Decision 9.COM 13.a in Document ITH/14/9COM/Decision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ichcap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이 소책자에서 사용된 명칭이나 제시된 자료는 특정 국가, 영토, 도시, 지역의 법적 지위 및 그 국경이나 경계에 관한 유네스코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이 책자에 포함된 내용이나 표현, 의견 등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으며 이는 유네스코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한국어판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책임 하에 발간되었습니다. 센터는 유네스코의 정책을 널리 홍보하고자 이 소책자를 아태지역의 여러 언어로 번역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해당 번역본은 유네스코 및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